

## [ 붙임 ]

### 1 소비자 피해사례

#### 【사례 1】 침수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

- 소비자는 2022. 5.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매하고 400만원을 지급함.
- 인수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이상 증상을 감지하여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'침수차량'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, 사업자는 성능점검장에서 침수로 판정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거절함.
- 이에 신청인은 타 성능점검업체를 통해 '침수차량'이라는 판정서까지 받아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,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음.

#### 【사례 2】 침수 미고지 중고자동차 구입가 환급 요구

- 소비자는 2021. 4.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 시 차량 인수과정에서 차내에 냄새가 심하여 사업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, 사업자는 실내 세차를 하면 냄새가 없어진다고 해명함.
- 이후 실내 세차를 위해 방문한 업체에서 '침수차량으로 의심된다'는 의견을 전달받고, 정비업체에 차량 감정을 의뢰하여 '침수차량'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구입가 환급 요구를 거절함.

#### 【사례 3】 침수차량으로 의심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

- 소비자는 2020. 8.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고 860만원을 지급함.
- 차량 운행 중 내부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고, 커버 안쪽 등에서 흙, 모래, 풀 등이 발견되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, 사업자는 침수차량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함.

#### 【사례 4】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 미고지 된 침수 차량 환불 요구

- 소비자는 2016. 8. 중고차 구입 시 교부받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침수사실이 없음을 확인함.
- 소비자는 차량 점검을 통해 침수로 인한 부식(바닥 매트 및 도어 등)을 확인하고 중고차 매매업체에 침수사실 미고지에 따른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.